김수영 시의 설움에 대한 고찰

오채운*

〈차 례〉

1. 서론
2. 소외된 주체의 현실 인식으로서의 설움
3. 설움에 대한 이중적 태도
4. 설움 극복의 문제와 침묵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과 관련하여, 설움의 원인과 현실 인식, 설움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설움의 극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은 인간 자체를 서러운 존재로 보는 시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소외될 때, 외부적인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발생한다. 설움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내면적 갈등으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런 이유로 설움은 극복되는 형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 한양대학교 강사

주어져도 내면세계에 갈등만 존재하고 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김수영은 침묵을 꼽는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는 화자와 더불어 주변인 모두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 인간은 영원히 서러운 존재로 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김수영, 설움, 현실 인식, 극복, 공간, 시간, 침묵

1. 서론

김수영의 시에는 '설움'이라는 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설움'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최하림에 의하면 "1953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에 쓴 9편의 시를 보면 절망의 숨소리가 배어 있다. 그 9편에는 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등장하고, 울음소리, 애처로움, 부끄러움과 같은 절망과 슬픔의 유사어들이 널려 있다"[1]고 할 정도로 설움은 두드러진 감정 표현이 된다. 그런 만큼 직간접적으로 김수영 시의 '설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혜원은 자기부정, 자기연민, 자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수영 시의 설움극복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2] 오봉옥은 시작(詩作) 태도와 관련하여 설움의식을 살피고 있다.[3] 김성조는 김수영의 시

1)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1, pp.209-210 참조.
2) 김혜원, 「김수영 시의 설움극복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3.
3) 오봉옥, 「김수영 시의 설움의식과 시작태도: 김수영 다시 읽기4」, 『문학과 비평』 제10호, 문학과비평사, 2004 여름, pp.99-138.

에 나타나는 부끄러움, 모욕, 수치, 설움 등을 비극적 역사와 시대를 살아가는 자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라는 전제 아래 살펴보고 있다.[4] 강연호는 화자와의 대립관계로서의 설움을 분석하고 있다.[5]

김유중은 "근대적인 일상, 도회의 일상생활이 그에게 피로와 설움의 기분을 안겨주었으며 이 감정을 하이데거가 말한 깊은 권태와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또 "이로 인해 김수영이 본격적으로 존재론적인 탐구에 뛰어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6]

김영희는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자아성찰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설움'과 '비속어'를 중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선행 연구가 "설움을 부차적인 논지로 파악하거나 민족적인 정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시인의 개별적인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시적인 정서를 밝히고" 있다. 특히 "김수영의 시에 나타나는 설움은 타자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에 바탕이 되어, 그의 기억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시작의 정서를 끌어내고 있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7]

방인석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김수영 시의 자유와 설움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역사적 조건에 대한 직시를 통해 '설움'을 발견하고 있으며 설움의 극복을 통해 자유를 선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8]

---

4) 김성조, 「한국 현대시의 난해성과 도피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49집, 2012, pp.150-151 참조.
5) 강연호, 「자기 갱신의 모색과 탐구」, 송하춘 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p.98.
6)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pp.202-203 참조.
7) 김영희, 「김수영 시의 자아성찰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0.
8) 방인석, 「김수영 시의 자유와 설움의 상관성 연구: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010 8, pp.87-106.

전병준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이 시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김수영 시의 해석에 진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설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움의 문제를 ‘주체와 타자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9)]

이러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설움의 발생 원인과 극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설움이 역사적, 타자적, 언어체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설움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긍지를 가짐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고 설움이 극복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10)] 그러나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에 대한 시각은 일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설움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긍정적인 태도로 인간의 내면에 설움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설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반적인 태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설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현실 인식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나 긍지 때문에 설움이 극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면밀하게 설움의 원인과 대응방식, 극복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11)] 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때 이

---

9) 전병준, 「김수영 초기 시의 설움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 39호, 2011 3, pp.377-400.

10) 이성혁, 「모더니티와 전통의 긴장 속에서 획득한 시의 엄숙성-김수영론」, 양민정 외, 『1960년대 시문학의 지형』, 한국외국어대출판부, 2006, p.127. 이 외에도 앞에서 논의한 전병준, 방인석, 김혜원 등의 연구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1) 본 연구에서 김수영의 시는 『김수영 전집1 시』, 민음사, 1984를 텍스트로 하였고 상용되는 한자 표기는 한글로 변환하여 인용하고 이해를 돕기

감정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그래서 첫째,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현실 인식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화자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처해 있는 개인적 위치와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원인을 분류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둘째, 화자가 자신에게 생긴 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가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지는지와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화자가 인식하고 대응하는 설움이 어떻게 승화되거나 극복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자유의 선취나 설움의 긍정, 긍지 등을 통해 설움이 극복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움이 과연 극복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김수영의 시에서 화자가 느끼는 설움 극복의 문제는 시간이나 침묵과 관련하여 나타나므로 이 두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려 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설움이라는 감정이 김수영의 시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김수영이 표현하고자 했던 세계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

2. 소외된 주체의 현실 인식으로서의 설움

김수영의 시에서는 '설움'이라는 감정이 개인 혹은 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화자가 왜 설움을

위한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또한 맞춤법은 원문을 살렸고 띄어쓰기는 원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인용하였다.

느끼게 되고 그 설움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설움은 단순한 설움이 아니며,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설움의 원인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자란 집중된 동물이다/그 이마의 힘줄같이 나에게 설움을 가르쳐 준다/전란(戰亂)도 서러웠지만/포로수용소(捕虜收容所)안은 더 서러웠고/그 안의 여자들은 더 서러웠다
>
> -「여자」 부분

「여자」에서 설움은 '전란, 포로수용소, 여자' 이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된다. 이를 통해 '전란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구속감과 이데올로기의 억압, 생명의 잉태나 성적 유린'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추된 사실들은 결국 인간의 탄생과 성장, 죽음을 의미하므로 화자는 태어나서 고통 받다가 죽는 인간의 삶 자체를 서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이유는 존재의식을 느낄 수 없고 이념에 의한 권력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포로수용소는 이념의 억압이자 거부를 의미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이념에 의한 인간의 억압에 설움을 느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남의 일하는 곳에 와서 아무 목적 없이 앉았으면 어떻게 하리/남이 일하는 모양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밝고 깨끗하여 아름다웁게 보이면 어떻게 하리//일한다는 의미가 없어져도 좋다는 듯이 구수한 벗이 있는 곳/너는 나와 함께 못난놈이면서도 못난놈이 아닌데/쓸데없는 도면(圖面) 위에 글씨만 박고 있으면 어떻게 하리/엄숙(嚴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곳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다/이 사무실도 네가 만든 것이며/이 많은 의자(椅子)도 네가 만든 것이며/네가 그리고 있는 종이까지 네가 제지(製紙)한 것이며/청결(淸潔)한 공기(空氣)조차

어즈러웁지 않은 것이/오히려 너의 냄새가 없어서 심심하다//남의 일하는 곳에 와서 덧없이 앉았으면 비로소 설워진다/어떻게 하리/어떻게 하리/

-「사무실」 전문

바늘구녕만한 예지(叡智)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의 설움이여/너는 차라리 부정(不正)한 자가 되라/오늘/이 헐벗은 거리에 가슴을 대고/뒤집어진 부정이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그러면 너의 벗들과/너의 이웃사람들의 얼굴이/바늘구녕 저쪽에 떠오르리라/축소(縮小)와 확대(擴大)의 중간에 선 그들의 얼굴/강력과 기도(祈禱)가 일체가 되는 거리에서/너는 비로소 겸허(謙虛)를 배운다//바늘구녕만한 예지의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이여/나의 현실의 메에뜨르여/어제와 함께 내일에 사는 사람들이여/강력한 사람들이여……

-「예지(叡智)」 전문

시「사무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설움은 남의 사무실에 놀러가서 인식하게 되는 설움이다. 화자는 남이 나보다 더 밝고 깨끗하거나 아름다운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 여기서의 남은 다름 아닌 '구수한 벗'이지만 화자는 벗을 남으로 표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한다. 사무실의 모든 비품이 친구의 소유이며 친구가 일에 몰두하는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청결한 사무실이 냄새가 없어서 심심하다고 비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를 자각하는 순간 설움을 느끼게 된다.[12] 비하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게 되는 순간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이 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시「예지」에서의 화자는 내면적 자아를 대상으로 바라보며 '너'

12) 김유중은 이에 대해 "이러한 발견과 의문은 곧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는데, 그 성찰 과정이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개별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유중, 앞의 책, p.203.

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너'는 결국 화자 자신이 된다. 이렇게 '너'로 지칭되는 타인과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설움을 발생시킨다. 벗과 이웃들이 있는 세상으로 가려면 화자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하여 '너'라고 호칭하며 부정한 자가 되라고 위악적으로 말한다.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 벗이나 이웃들과 자신을 분리시킨다. 벗과 이웃들은 화자와는 달리 '중간'과 '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화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늘구녕만한 예지의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화자는 이들과는 다른 편에 홀로 있기 때문에 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설움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발생된다.

>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벼웁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남의 말을 하여왔으며/그것도 간신히 떠듬는 목소리로밖에는 못해왔기 때문이다/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이러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젊은 것이/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이다//1950년 7월 이후에 헬리콥터는/이 나라의 비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이것이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그래도 제트기나 카아고보다는 늦게 나왔다/그렇지만 린드버어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 느끼고야 만다/비애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의 설운 모양을/우리는 좁은 뜰 안에서뿐만 아니라/심지어는 항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볼 수 있고/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痴情)을/헬리콥터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
>
> -「헬리콥터」 부분

너를 딛고 일어서면/생각하는 것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나의 가슴 속에 허트러진 파편들일 것이다//너의 표피(表皮)의 원활(圓滑)과 각도(角度)에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나의 발을/나는 미워한다/방향은 애정---//구름은 벌써 나의 머리를 스쳐가고/설움과 과거는/오천만분지 일의 부감도(俯瞰圖)보다도 더/조밀하고 망막하고 까마득하게 사라졌다/생각할 틈도 없이/애정은 절박하고/과거와 미래와 오류(誤謬)와 혈액들이 모두 바쁘다

-「레이판탄(彈)」 부분

시「헬리콥터」에서는 헬리콥터가 1950년 전쟁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비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더 자유롭게 세상에 떠다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는 사람과 놀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화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설움을 아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견해가 풍자적 시선과 해학적 시선으로 양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분된 시선이 결국 설움이라는 하나의 시선으로 모아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풍자적, 해학적 이 두 시각은 모두 당시의 국민이 처해 있던 폭력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설움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를 지배하게 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순간 풍자의 대상 안에서 풍자할 것을 내려다보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헬리콥터에게 "너는 설운 동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헬리콥터 때문에 인간이 서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헬리콥터에게 서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객관화를 통해 설움과 자아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레이판탄」에서는 또 하나의 살상무기인 '레이판탄'으로 인해 설움을 인식하게 되고 다시 그 설움과 과거를 잊게 된다. 외부로부터 온 살상무기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화자를 무

기력하게 만든다. 살상무기 안에서 화자는 서럽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두 편의 시 모두 자신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외부적 요인이란 약소국으로서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시 「조고마한 세상의 지혜」에서는 "조고마한 세상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설운 일이다"라고 말한다. '조고마한 세상'처럼 비루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견디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설운 일'임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김수영 시인이 가지는 설움의 원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극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자체를 서러운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느끼는 운명적인 설움, 타인과 단절되고 소외되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느끼는 설움, 약소국의 국민으로서 강대국이 행하는 살상의 피해를 입으면서 발생하는 설움 등이 모두 화자가 현실을 소외된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발생된다. 자신이 소외된 주체라는 현실 인식이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국가의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역사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극복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3. 설움에 대한 이중적 태도

바슐라르에 의하면 "장소분석이란 우리들의 내면적인 삶의 장소들에 대한 조직적인 심리적 연구이다. 공간은 수많은 벌집 같은 구멍들 속에 시간을 압축해 간직하고 있으며 공간은 그렇게 하는 데 소용된다. 그리고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13] 김수영의 시에서도 바슐라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설움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화자가 속해 있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회에서 방황하다가 시골로 장소를 옮긴 다거나 시골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와 도시인들을 관찰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에서 화자는 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화자가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설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시금치 밭에 거름을 뿌려서 파리가 들끓고/이틀째 흐린 가을날은 무더웁기만 해/가까운 데에서 나는 인성(人聲)도 옛날이야기처럼/멀리만 들리고/눈은 왜 이리 소경처럼 어두워만지나/먼 데로 던지는 기적 소리는/하늘 끝을 때리고 돌아오는 고무공/그리운 것은 내 귓전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셀라틴지(紙)/---나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처럼/외계의 소리를 여과(濾過)하고 채색해서/숙제(宿題)처럼 나를 괴롭히고 보호한다//머리가 누렇게 까진 땅주인은 어디로 갔나/여름저녁을 어울리지 않는 지팽이를 들고/이방인처럼 산책하던 땅주인은/---나도 필경 그처럼 보이지 않는 누구인가를/항시 괴롭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문인(拷問人)/시대의 숙명이여/숙명의 초현실(超現實)이여/나의 생활의 정수(定數)는 어디에 있나
>
> -「장시 2」 부분

이 시에서 화자의 감각은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둔해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무감각의 상태는 그 원인이 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환경 때문에 화자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화자는 자신에게 처해진 서정적인 상황이 자신을 침묵으로 이끄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

13)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p.83-84 참조.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자신이 외부의 상황에 귀 기울이고 침묵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외계의 소리'를 자신이 속해 있는 시골의 안락함이 아닌 혁명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자신의 생각으로 깊게 판단한다. 처해진 상황을 '여과하고 채색'하는 태도는 자신이 깊이 숙고한 결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러한 태도를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화자는 '숙제처럼 나를 괴롭히고 보호한다'고 표현한다. '숙제처럼'이라는 말은 화자가 다소 의무감을 느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나를 괴롭히고 보호한다'는 표현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직시가 화자를 괴롭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이중성이 드러난다. 떨쳐버릴 수 없는 자기모순 아래 고뇌하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김수영의 다른 시 「전향기」, 「설사의 알리바이」, 「그 방을 생각하며」 등에서도 드러난다.[14]

이러한 도회적 인식에서 나오는 현실 반응 때문에 화자는 시골에 대해서도 서정적 여유로움이 아닌 자본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시골에도 땅주인이 있고 땅주인은 시골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으로 표현된다. 화자는 땅주인과 자신을 견주어보면서 자신 또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인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시대에서 찾으며 이러한 숙명이 현실에서 벗

14) 「전향기」에서는 일본 시인들의 작품을 읽는 행위, 소련을 생각하는 일, 중공(中共)을 욕하는 일 등의 한가운데서 지식인의 고뇌를 '치질을 앓고 피를 쏟았다'거나 '소화불량증이 생겼다'거나 하는 신체적 고통으로 표현하며 '치질도 낫기 전에 또 술을 마셨다'는 고백을 통해 이러한 고통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설사의 알리바이」에서는 '성의 윤리', '윤리의 윤리'라는 규제 아래 시를 쓰는 고통을 '아슬아슬한 설사'로 표현하며 시인이 가지는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방을 생각하며」 역시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방만 바꾸어버린 화자가 방에서 들려오는 '싸우라 싸우라' 혹은 '일하라 일하라'는 소리를 잊어버렸다는 말로 외면하는 모습을 통해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화자가 시골의 삶에 안주하지 못하고 잠시 지나가는 자, 잠시 구경하는 자의 모습으로만 머문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아래에 분석하게 될 시 「시골 선물」에서 화자는 시골에서 지냈던 시간을 '시골 생활'이라 하지 않고 '시골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시골이라는 공간은 서정적 배경을 내세우며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침묵과 내면의 갈등만으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은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된다.

> 서울에 돌아온 지 일주일도 못 되는 나에게는 도회의 소음(騷音)과 광증(狂症)과 속도(速度)와 허위(虛僞)가 새삼스럽게 미웁고/서글프게 느껴지고/그러할 때마다 잃어버려서 아깝지 않은 잃어버리고 온 모자 생각이 불현듯이 난다/거기 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먹고 떠들고 웃고 있는 여자와 젊은 학생을 내가 시골을 여행하기 전에 보았더라면 대하였으리 감정과는 다른 각도와 높이에서 보게 되는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이 보다 더 거만하여지고 순화되어진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구태여 생각하여본다/그리고 비교하여본다/나는 모자와 함께 나의 마음의 한모퉁이를 모자 속에 놓고 온 것이라고/설운 마음의 한 모퉁이를
>
> -「시골 선물」 부분

이 시에서 젊은이들을 향한 화자의 시선은 곱지 않게 표현된다. "젊은이들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곱지 못한 것은 비록 당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후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전통 문화나 정숙함과 조신함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청년이나 계집아이에게 곱지 않은 시선에서 화자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다."[15] 화자는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

15) 유창민, 「김수영 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시선 연구」, 겨레어문학회, 『겨

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 2」에서 시골이라는 환경이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던 화자는 서울로 돌아오면서 설움을 느끼게 된다. 화자가 설움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은 '도회의 소음과 광증, 속도, 허위'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시골의 풍경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로 화자가 그것들로부터 소외되어 느끼는 설움이다. 이러한 것들은 서울에 항상 있었던 것이고 화자 또한 그것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미웁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자가 시골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는 그러한 무구함이 싫다고 했으면서 정작 도시에서 설움을 느끼는 처지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 화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고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설움을 느낀다.

이 설움은 화자가 시골에 두고 온 모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화자는 이 모자를 "중앙선 어느 협곡에 있는 역에서 백여 리나 떨어진 광산촌에서 잃어버리고 온 겨울 모자, 갈색 낙타모자, 유행에서도 훨씬 뒤떨어진 모자, 서울의 화려한 거리에서는 도저히 쓰고 다니기 부끄러운 모자, 둘레가 작아서 맞지 않는 모자, 쳇바퀴를 쓴 것처럼 딱딱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모자, 시골이라고 무관하게 쓰고 간 모자"라고 밝히고 있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화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을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유행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 갔으며 시골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왔다. 모자를 잃어버리고 왔다지만 모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리고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아깝지 않은 모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모자는 곧 화자의

레어문학』 제45집, 2010 12, p.160.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서울에서 느꼈을 자신의 '감정'들이 시골에서 변화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도심 한가운데 앉아 과거에 느꼈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설움이 시골 여행을 하기 전에 느끼던 '설움'과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자로 알 수 있는 심경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움도 시골 여행을 통해 그 질이 변화되었다고 보는데 그 감정은 "거만하여지고 순화되어진" 상태이므로 「장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이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장시 2」에서는 현실 인식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보호하고자'하고 이 시에서는 '거만하면서도 순화된' 감정과 같이 양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설움을 부정하면서도 「여름뜰」에서 "질서와 무질서와의 사이에/움직이는 나의 생활은 섧지가 않아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다"와 같이 섧지 않으면 삶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병풍(屛風)」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설움이라고 하면서"와 같이 설움을 부정하기도 한다. 설움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지극히 이중적인 것이다.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수영의 시가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그 태도가 이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를 부정하며 시골로 옮겨가 현실을 바라볼 때도 시골의 풍경을 서정적 시각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시골과 분리시키며 도시공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인다. 시골의 정서를 부정하며 도시로 돌아와서는 다시 도시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며 부정적인 시각을 놓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이 소외당하는 주체였다면 이제 소외시키는 주체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움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어 지극히 이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김수영의 시가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간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영이 이렇게 소외된 주체로서 느끼는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방황을 통해 보여주는 이유는 내면적 갈등으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지적과 분노의 표현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4. 설움 극복의 문제와 침묵의 의미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설움의 극복은 시간이나 침묵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설움은 앞에서 논의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묘사되고 있다.[16] 또한 화자와 주변인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도 같이 묘사되고 있다. 김수영의 다른 많은 시에서도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과

16) 김유중은 김수영의 시에서 시간을 '죽음'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죽음은 "절대화된 관념이자 이상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죽음이라는 이상화된 관념을 통해 현실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기란 처음부터 그 한계가 뚜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근대라는 시대적 조건은 그 특성상 이러한 이상화된 관념의 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수영 역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인간 존재의 현실적 모순 극복 의지와 연관된 모더니티의 시간적 맥락에 대한 그의 사유는 바로 이러한 한계 의식의 바탕 위에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중, 앞의 책, pp.85-86 참조.

침묵에 대한 생각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설움, 시간, 침묵의 문제는 서로 관련지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비가 그친 후 어느날---/나의 방안에 설움이 충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오고가는 것이 직선으로 혹은/대각선으로 맞닥드리는 것 같은 속에서/나의 설움은 유유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갔다//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태여 찾아서 헤매는 것은/우둔한 일인 줄 알면서/그것이 나의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밑바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아아 그러나 지금 이 방안에는/오직 시간만이 있지 않으냐//흐르는 시간 속에 이를테면 푸른 옷이 걸리고 그 위에/반짝이는 별같이 흰 단추가 달려 있고//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 뻐근하여만 가는 목을 돌려/시간과 함께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것/그것은 혹시 한 자루의 부채/---그러나 그것은 보일락말락 나의 시야에서/멀어져 가는 것---/하나의 가냘픈 물체에 도저히 고정될 수 없는/나의 눈이며 나의 정신이며//이 밤이 기다리는 고요한 사상마저/나는 초연히 이것을 시간 위에 얹고/어려운 몇 고비를 넘어가는 기술을 알고 있나니/누구의 생활도 아닌 이것은 확실한 나의 생활//마지막 설움마저 보낸 뒤/빈 방안에 나는 홀로이 머물러 앉아/어떠한 내용의 책을 열어보려 하는가
>
>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전문

이 시에서 '설움'은 화자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화자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선 '비'는 김수영의 다른 시「누이의 방」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화자가 겪게 되는 시련 등을 의미한다.[17] 그런데 화자는 자신에게 불어 닥친 시

17) 오채운은「누이의 방」과「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논의하면서 전자에서는 '장마가 가셨다'라는 전제가 있고, 후자에서는 '비가 그쳤다'는 전제가 있는데 두 시에서의 '장마' 혹은 '비'는 모두 '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시련에 대응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논의하고 있다. 오채운,「김수영 시의 '방'과 내면적 갈등의 변화 양상」,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열린정신 인문학 연구』제16집 1호, 2015 6, pp.186-187 참조.

런이 물러간 후 '설움'이라는 감정을 맞게 된다.[18] 그리고 이 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시간인데 '설움' 후 '시간'이 찾아온다는 생각은 주목할 만하다. "시간은 계기적 질서로 전개되며 공간은 병치적 질서로 전개"[19]되기 때문에 계기적 질서를 통해 설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움이 자기의 시간을 찾아갔다'는 표현은 인간이 아니라 설움이 주인이 되어 방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즉 2연에서의 시간은 설움의 시간인 것이다.[21]

그런데 3연에 오면 '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설움'과 '시간'이 분리된다. "설움은 유유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는 반면에 화자는 "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독립된 의미에서의 '시간'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2]

화자는 이러한 상태의 방안을 감옥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을 그

---

18) 강연호는 이때 방을 "설움을 역류하고 싶은 나와 방안에 충만한 설움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강연호, 앞의 논문, p.98.

19)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p.465.

20) 유성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설움을 발산하는 방법으로 한 밤의 원시적인 꿈을 택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약하고 착하고 우둔하고 선량하고 우직한 성정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자발적인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성호, 「김수영의 새로운 자료에 나타난 실존적 풍경」,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51집, 2013 8, pp.88-89 참조.

21) 오채운은 "여기서 설움은 침묵과는 달리 화자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설움은 오래 남아 있지 않으며 화자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오채운, 앞의 논문, p.187.

22) 김유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기서의 밤은 시간적 인식과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은 현실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관념화된 순수 의식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생활 또한 현실 생활로 보기는 어려우며 순수 의식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나타난 밤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인식의 기초 위에 성립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김유중, 앞의 책, pp.75-76 참조.

러한 방안에 포획되어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반짝이는 별같이 흰 단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자는 언제든지 죄수복과 같은 푸른 옷을 벗어버리면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설움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주체는 화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을 시간의 포로, 설움의 포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화자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하나의 가치관에 고정되어 뻐근한 자신의 시선을 돌려도 보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외적인 요인도 찾아보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존재로서 방안에 남아 있다. 김수영의 많은 시에서 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방안에 속해 있는 한 설움을 끌어안고도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화자는 이중적인 면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화자의 삶의 방식임을 인정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화자가 방안에서 설움과 시간과 싸우면서 얻어낸 결론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설움도 시간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의미하는 '방안'에서 모두 내보낸 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는 태도를 취하지만 화자의 내면에서 갈등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23] 이처럼 설움은 화자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비어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23) 이에 대해 김명인은 설움을 '방법적 필요악'으로 단정하며 "설움의 정서를 통해 시인은 일상적 삶으로부터 자기 갱신의 삶으로 비극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김수영의 설움을 통한 시적 전략이다"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서의 도약은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에 부딪치게 될 때 그 갈등을 극복해냄으로써만 가능한 도약일 것이다. 김명인,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2002, pp.105-106.

혼미(混迷)하는 아내며/날이 갈수록 간격이 생기는 육골들이며/새가 아직 모여들 시간이 못된 늙은 포플러나무며/소리 없이 나를 괴롭히는/그들은 신의 고문인(拷問人)인가/---어른이 못되는 나를 탓하는/구슬픈 어른들/나에게 방황할 시간을 다오/불만족의 물상(物象)을 다오/두부를 엉기게 하는 따뜻한 불도/졸고 있는 잡초도/이 무감각의 비애가 없이는 죽은 것//술 취한 듯한 동네아이들의 함성/미쳐 돌아가는 역사의 반복(反覆)/나무뿌리를 신의 발자죽 소리/가난한 침묵/자꾸 어두워가는 백주의 활극/밤보다도 더 어두운 낮의 마음/시간을 잊은 마음의 승리/환상이 환상을 이기는 시간/---대시간은 결국 쉬는 시간

-「장시 2」 부분

설움과 시간의 문제는「장시 2」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를 외부세계가 계속해서 자극한다. 그러나 화자는 어른이 되지 못하며 어른이 되지 못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타인들은 모두 구슬픈 존재들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타인처럼 구슬픈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을 갈구한다. 여기서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으로 단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한 방황의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통해 화자의 인식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화자는 고민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혁명을 꿈꾸는 가슴도 몸을 사리고 있는 민중도 무감각한 것에 대한 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은 없는 존재, 죽은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설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자가 보는 세상은 어린 아이들도 자각이 없고 역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이 아무리 인간에게 깨어 있으라고 종용해도 힘없는 자들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김수영은 이렇게 침묵만을 고수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부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김수영의 다른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4] 그래서

24) 이에 대해 보기로 들 수 있는 시가「피아노」인데 오채운은 '피아노가 모

힘없는 자들은 침묵 때문에 더 힘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다보니 모두가 부정적인 세상을 보고도 못 본 듯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침묵으로 인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다. 화자가 그토록 갈구하는 '시간'이 마음속에서 흘러가버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질없는 환상이 환상을 낳고 결국 화자는 시간이 주어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 결국 화자 또한 자신이 경멸하던 '침묵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시간'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 시에서의 화자는 시간을 염원했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설움은 극복되는 형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주어져도 내면세계에 갈등만 존재하고 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설움의 시간은 김수영이 인식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무도 부정적 현실에 대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만 보임으로써 하나의 기회로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진정한 설움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설움의 시간보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져도 분노의 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은 극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김수

든 것을 침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이념을 죽게 만드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 시에서 피아노는 예술적 가치와는 무관한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는 화자가 진정한 혁명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부정적 존재로, 제대로 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고 논의한다. 오채운, 앞의 논문, p.192. 이밖에도 김수영의 시 「말」, 「모리배」, 「H」 등이 침묵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의 시는 화자와 더불어 주변인 모두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 영원히 서러운 존재로 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이 화자의 현실 인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화자가 느끼게 되는 설움이라는 감정과 현실 인식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화자가 위치하는 공간과 내면세계의 변화에 따라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또한 화자가 느끼는 설움은 진정으로 극복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김수영 시인이 가지는 설움의 원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극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자체를 서러운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느끼는 운명적인 설움, 타인과 단절되고 소외되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느끼는 설움, 약소국의 국민으로서 강대국이 행하는 살상의 피해를 입으면서 발생하는 설움 등이 모두 화자가 현실을 소외된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발생된다. 자신이 소외된 주체라는 현실 인식이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국가의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역사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극복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다음으로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그 태도

가 이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를 부정하며 시골로 옮겨가 현실을 바라볼 때도 시골의 풍경을 서정적 시각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시골과 분리시키며 도시 공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인다. 시골의 정서를 부정하며 도시로 돌아와서는 다시 도시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며 부정적인 시각을 놓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이 소외당하는 주체였다면 이제 소외시키는 주체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움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어 지극히 이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김수영의 시가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간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영이 이렇게 소외된 주체로서 느끼는 설움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방황을 통해 보여주는 이유는 내면적 갈등으로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발설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움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설움은 극복되는 형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주어져도 내면세계에 갈등만 존재하고 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설움의 시간은 김수영이 인식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무도 부정적 현실에 대해 발설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만 보임으로써 하나의 기회로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진정한 설움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설움의 시간보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져도 분노의 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은 극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는 화자와 더불어 주변인 모두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

인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 영원히 서러운 존재로 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김수영의 시를 대상으로 설움과 현실 인식의 관계, 화자의 설움에 대한 대응 방식, 설움에 대한 극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실 인식의 문제에서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설움에 대한 대응 방식은 공간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김수영의 시에서는 설움에 대한 극복의 문제를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움의 극복은 단순한 극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침묵이라는 시어를 통해 김수영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수영, 『김수영 전집1 시』, 민음사, 1984.

2. 논문

김성조, 「한국 현대시의 난해성과 도피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49집, 2012, pp.137-162.
김영희, 「김수영 시의 자아성찰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0.
김혜원, 「김수영 시의 설움극복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3.
방인석, 「김수영 시의 자유와 설움의 상관성 연구: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010, pp.87-106.
오봉옥, 「김수영 시의 설움의식과 시작태도: 김수영 다시 읽기4」, 문학과비평사, 『문학과 비평』 제10호, 2004 여름, pp.99-138.
오채운, 「김수영 시의 '방'과 내면적 갈등의 변화 양상」, 원광대학교 인문학연

구소,『열린정신 인문학 연구』제16집 1호, 2015, pp.179-201.
유성호,「김수영의 새로운 자료에 나타난 실존적 풍경」, 한국언어문화학회,『한국언어문화』제51집, 2013, pp.81-103.
유창민,「김수영 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시선 연구」, 겨레어문학회,『겨레어문학』제45집, 2010, pp.153-181.
전병준,「김수영 초기 시의 설움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연구」, 한국비평문학회,『비평문학』제39집, 2011, pp.377-400.

3. 단행본

강연호,「자기 갱신의 모색과 탐구」, 송하춘 이남호 편,『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김명인,『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2002.
김유중,『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이성혁,「모더니티와 전통의 긴장 속에서 획득한 시의 엄숙성-김수영론」, 양민정 외,『1960년대 시문학의 지형』, 한국외국어대출판부, 2006.
이승훈,『시론』, 태학사, 2005.
최하림,『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오채운
소속: 한양대학교 강사
주소: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260 현대아파트 506동 1113호
전화번호: 010-2757-2131
전자우편: sanchaeg@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Sorrow of Kim Sooyoung's Poem

O, Chae-Woon

In reference to 'sorrow' of Kim Sooyoung's poem, this study examined cause and perception of reality of sorrow, method and space responding to sorrow, and conquest and time of sorrow. Sorrow of Kim Sooyoung's poem was happened by viewpoint that people themselves are seen as the sorrowful existence, severance and alienation in the relations with others, and suppression of an external power. A narrator's responses to sorrow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pace, and showed double attitudes such as positiveness and negativeness. This was to show an intellectual agonizing continuously because of convert conflict. Therefore, sorrow not was overcame, but showed an aspect to make a new conflict. Kim Sooyoung selected a silence as the biggest cause of this. Therefore, Kim Sooyoung's poem showed an attitude of anger about a silence of all bystanders with a narrator. This implied that one person becoming silent about injustice in the inner workings of humankind will be remained as a sorrowful existence forever.

Key words: Kim Sooyoung, Sorrow, Perception of Reality, overcome, Space, Time, Conflict, Silence